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1. 2. 7 ~ 2021. 2. 27 제241호

▲ 라오스의 한 소녀. 제공: WMM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생경한 광경이다. 라오스의 한 소녀가 한 손으로는 대나무를, 다른 한 손에는 톱을 잡았다. 안전장치도 없다. 저러다 다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무색할 만큼 소녀의 자세가 안정적이다. 얼마나 많이 해보았을까? 저렇게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대나무 자르기를 배워 온 듯하다.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그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다고 고백한다.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았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 보면, 믿음이 없어 이리저리 넘어질 때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넘어진 그 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 많이 넘어져 본 인생은 그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시편 71:17) [GPNEWS]

다음 호는 2월 28일자로 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 동성애 강조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동성애와 좌익사상 교육정책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교육청)이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동문서답과 의견청취거부 등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6일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을 교묘하게 배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또 이에 앞서 교육청은 1월 중순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본질은 외면한 채 논점을 흐리게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성평등' '성인권' 교육 실시, 좌익사상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지난주 교육청의 인권옹호관 외 두 명과 면담했을 때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는 쪽에서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에 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 당일이 되자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며 우리 쪽 발언 영상을 갑자기 제한했다."고 밝혔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소개했다.

교육청은 또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학교에서 교과서 외의 각종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시행됐으며, 그 결과는 오늘과 같은 타락한 서구사회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사상 신봉자들은 가정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인간의 성적 자유를 무시하는 혐오집단으로 여기도록 다양한 선전·선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를 주장하면서도 기독교를 차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악한 자와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5)

부패한 생명+잘못된 자아 인식='병든 자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런데 대체 어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나'라는 자아는 곧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란 나 자신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고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충격과 자극에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진(陣)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났을 때는 내가 누구라는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교육과 신문, 잡지, 광고, 드라마, 연예인 등 미디어를 통해 외모, 성격, 장·단점 등 자아 인식에 대한 정보가 쌓입니다. 여기에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부모나 권위자,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뒤섞입니다. 그 결과 왜곡된 가치관과 자아 인식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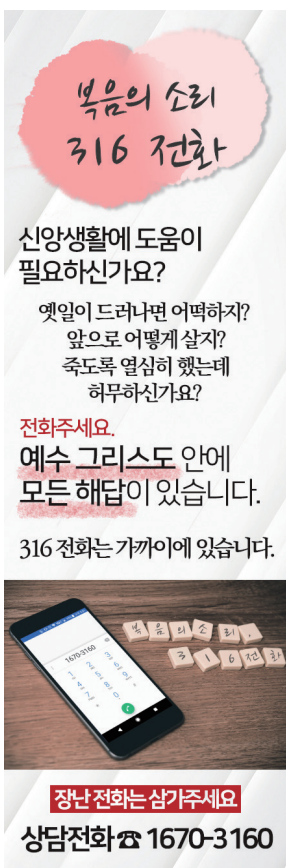
"너는 못생겼어."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말들로 형성된 자아는 반작용으로 자아 연민, 자기만족, 자기 쾌락,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합니다. "너는 예뻐." "똑똑해." "착해."라는 긍정적 인식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자기의를 만들어 왜곡된 자아 인식을 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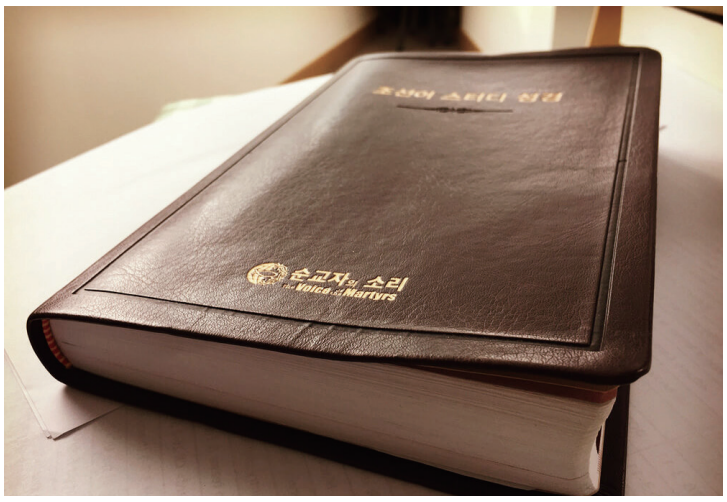
이렇듯 죄가 생명 자체에 들어온 모든 인간의 '부패한 생명'에 '잘못된 자아 인식'이 더해진 것을 '병든 자아'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든 자아가 평생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쳐 거짓된 실체를 가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화려한 외모, 더 큰 성공, 더 강한 자존심, 더 강한 피해의식, 때로는 더 착하고 열심히 사는 나를 만들어 계속 병든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십자가 앞에 결코 나아가지 않는 나의 실체입니다. 복음을 통해 원형의 생명이 어떠한 모습인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GPNEWS]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한국 VOM, 지난해 북한에 성경 2만 권 이상 전달



▲ 조선어 스터디 성경.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VOM)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2020년에 2만 2847권의 성경을 북한에 보내고, 5개의 단파와 중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일 북한에 오디오 성경을 송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한국 VOM이 2020년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전달한 성경책과 전자 성경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 VOM은 2021년에는 더욱 강화되고 확장된 네트워크를 활용, 작년보다 30% 더 많은 성경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 VOM은 북한에 대한 성경배포 방법, 지역 등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밝히지 않았다.

한국 VOM CEO 에릭 폴리 목사는 "대북 풍선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대량으로 배포된 성경 수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직접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의 수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미래가 암담해 보일 때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지난해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찾기 위해 성경에 의지했고 성경에서 소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후원자들의 동역에 힘입어 북한에 성경이 담긴 풍선을 보내는 데 사용했을 기금으로 기존의 4개 라디오 채널에 30분짜리 방송 채널 하나를 더 추가해 5개의 대북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 방송으로 성경을 드라마처럼 실감나게 낭독해 주는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한편, 폴리 목사는 한국 VOM이 과거에 행한 풍선 사역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이 두려웠다면 애당초 북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을 북한 사람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는 것만 전적으로 집중한다. 만약에 내일 이것이 범죄로 규정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 목사는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받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 VOM으로 보내는 소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한 주민이 MP3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살아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MP3에 녹음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따스한 선물들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 열 번, 백 번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을 간직할 것"이라는 간증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GPNEWS]

중아공, 비상사태 선포… 국민들 국경 넘어 탈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 정부가 지난 21일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선과 총선 이후 반군들이 수도 방기를 점령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조치다. 중아공은 최근 투아데라 대통령이 연임을 확정했지만, 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프랑수아 보지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군 세력 탓에 갈등이 격화됐다.

한편, 중아공 유엔대사는 급증하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회의에 평화유지군을 증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픈도어선교회 현지 파트너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과 카메룬 국경을 넘고 있다."면서 "큰 총격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려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디서나 공포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이미 생필품 가격의 급등을 전해왔다."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나온 한 인도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군들이 수도 방기와 이웃 국가 카메룬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를 공격해 방기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기에는 식량과 약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 명의 트럭기사들이 매복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고 수십 명의 트럭 기사들이 카메룬 국경에 묶여 있다. 방기로 가는 다른 도로들에는 전에 있던 노점상 가판대가 절반은 비어 있고, 포위되어 있다.

프란 이퀴자 유니세프 대사는 "이 새로운 폭력 사태와 난민화는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미 수년간 겪은 갈등과 치안불안의 결과이며, 코로나19로 절박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필요성들을 더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픈도어선교회 현지 파트너들은 북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심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GPNEWS]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출처: 유튜브 채널 United Nations 캡처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中,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이미 알고 있어… 공개 거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 중인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기원의 단서를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중국은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미국, 인도 등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에 들어와 바이러스 추적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해왔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정체를 감춰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온 중국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한 중국 공산당을 깨우쳐주시고, 죄과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예자연, 좌석수 10~20% 제한은 예배 자유 제한… 헌법소원 접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오후에 접수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정부는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해 왔으며 현재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예배와 관련, '수도권과 부산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 수의 20%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교회의 예배를 다른 다중 이용 시설보다 보호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더 엄한 기준을 적용해 기독교 전체가 반사회적 집단처럼 매도당하는 현실을 올려드립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며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파하시고, 오히려 이 땅이 교회를 통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갈 힘을 얻도록 일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엄격한 낙태 금지국 온두라스, 사실상 낙태 금지법 통과시켜

온두라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낙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 중 하나로, 성폭행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게 했다.

인구의 96%가 기독교인이며, 대부분이 가톨릭인 온두라스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생명을 지키는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이 같은 순종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2월 8일 ~ 2월 27일

2월 8일 ~ 2월 13일

2.8~12(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2.9(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2.9~12(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2.11(0시)~12(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둘람공동체(정**)010-3697-0641, **2.12(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2.12(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2.12(10시)~13(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2.12~13(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2.13(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4교회 진행중.

2월 15일 ~ 2월 20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2.15(10시)~16(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2.15~19(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15~20(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2.17(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2.19(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2.19~20(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5교회 진행중.

2월 22일 ~ 2월 27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2.22~26(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22~27(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2.23,25~27(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월드포커스

바이든 정부 잇따른 좌편향 정책 논란
1776년 위원회 해산·낙태 합법화 성문화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정책을 폐지한데 이어, 미국의 다음세대에게 애국 교육을 위해 만든 '1776년 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낙태 합법화를 성문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좌편향 된 정책을 잇따라 발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애국 교육 위해 만든 '1776년 위원회' 해산 결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방정부를 통한 인종적 평등 증진과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학생들의 '애국 교육'을 위해 만든 '1776년 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 명령은 "기관들이 인종, 민족, 종교, 소득, 지리,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장애 등에 관한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임을 명시한다. 그 중에서도 10조(Section 10)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1776년 위원회'를 만든 행정명령 13958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학계와 주류 문화의 좌편향 추세에 대응해, 공립학교를 위한 애국 교육을 만들도록 위원회 창립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1776년 위원회가 극좌 교육 문제와 '1619 프로젝트'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것이다. '1619 프로젝트'는 뉴욕타임스가 기획한 탐사보도 시리즈로, 미국 역사의 시작은 노예선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619년이며,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노예제도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과 건국 당시 대부분의 국부들이 노예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의 북부는 물론 남부주 대표들도 언젠가는 노예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어떻든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619 프로젝트'의 극좌 교육은 미국의 의무 공교육 체제(K-12)에서 급속도로 번질 전망이다. 현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워싱턴D.C.와 뉴욕 버팔로의 일부 학군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1619프로젝트는 2021년 1월 초 현재 최소 3500개 학교 교실의 커리큘럼으로 채택되고 주류사회로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1619 프로젝트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블랙라이브즈매터(BLM, 흑인생명이소중하다) 폭동 시위로 나타났다. 이 시위 참여자들은 실제로 모든 국부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여기며, 심지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링컨을 포함한 미국 전역 국부들의 동상과 기념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한편, 지적설계를 연구하는 미국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Discovery Institute)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트럼프의 '다양성 교육 금지' 명령을 철회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양성 교육은 미국 군대 및 연방정부 협력체, 연방보조금 수혜 단체들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반대하도록 권고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태생적으로 차별적이라는 '비판적 인종 이론' 개념을 교육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교육을 금지시켰다.

크리스토퍼 루퍼 소장은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인의 삶의 방식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인종 본질주의, 인종 고정관념, 인종에 기초한 분리라는 악의적인 개념으로 미국인을 구별한다. 이는 모두 사회적 정의를 잘못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할 것" 낙태지지 발표 논란

CP는 또 백악관이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성문화하고, 로와 같은 기본적 판례를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생명권위원회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총 낙태 건수가 6200만 건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을 성문화하고 낙태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가톨릭통신은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조지프 나우만 대주교가 "우리는 대통령이 낙태를 거부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지역사회에 생명을 보장하는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의 진 만치니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낙태는 건강관리가 아니라면서 "신임 행정부가 이미 낙태 극단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수립한 멕시코시티 정책을 비롯한 친 생명 정책들을 폐지할 계획이다.

CP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세계보건기구 이사국들에게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성과 소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와 전 세계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보다 폭넓은 약속의 일환으로, 앞으로 수일 내에 멕시코시티 정책(저개발국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NGO에 대한 지원금지)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UTT(Understand The Times)〉 [GPNEWS]

▲ 낙태 반대 시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현장. 출처: unsplash

정부의 비혼 커플 가족화 제도, 가족해체 가속화시킬 위험한 발상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오후 가정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동성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가족제도 변화는 결국 동성 결혼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결혼 기피, 결혼제도 약화, 이성 부부간의 헌신도 하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건사연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04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 동반자 관계가 도입될 때 성직자들은 정부가 시민 동반자 결혼이 원래의 결혼과 구별될 것이라는 확언을 근거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에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발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비혼 동거인이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여기고 법적으로 인정하며,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영국에서 시행된 '시민 동반자'의 가족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영국의 시민 동반자 법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시각이다.

또 정부가 비록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주요 목표였지만,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시민 동반자 관계가 허용되면, 실제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의 수는 줄어들며 결혼제도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이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여가부 정책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 첨예한 의견대립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건강가족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며,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 외에도 위기, 취약가족지원 등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지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와 같은 현실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존중을 위해 성평등, 세대, 젠더 간 위계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가족의 개념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향후 동성 커플 등을 가족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48)

진화론의 10가지 거짓말 뒤집기 (1)

▲ 우주의 빅뱅은 실제 입증된 적 없는 추측이다. 출처: 창조과학선교회 캡처

미국 창조연구소의 브라이언 박사는 최근 진화론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적했다. 진화론에 대한 10가지 거짓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정이 순전히 초자연적인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1.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입증된 적 없는 추측이다. 오늘날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빅뱅이 우주의 기원일 필요는 없다. 교과서도 수평선 문제와 성숙한 은하 문제와 같은 빅뱅의 한계를 알고 있다. 빅뱅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그 구조와 온도에 걸쳐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이 놀랄 만한 균일성 또는 동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 또 처음 '폭발'된 모든 재료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구는 46억 년 되었다?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지구가 46억 년 전에 자연과정을 통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가 그보다 젊다는 증거는 많다. 현재 지구 자기장의 쇠퇴 속도를 보면 지구 자기장은 10만 년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의 화석, 석탄 및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것들은 짧은 수명의 방사성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10만 년보다 오래될 수 없다.

3. 지질학자들은 암석의 나이를 정하는데 좋은 과학(good science)을 사용한다?

어떤 지질학자도 암석의 나이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또 우리 중 누구도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일관된 붕괴 속도, 동위원소의 처음 비율, 동위원소가 붕괴된 이래로 동위원소의 출입 여부를 가정한다. 또한 같은 암석 표본에서도 동위원소를 통한 '나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버려야 할 것인지 자신의 신념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창조연구소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다년간 연구된 지구 나이를 통해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측정할 때 나쁜 과학(bad science)을 사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해왔다.

4. 과학자들은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는 수준에 근접했다?

과학자들이 화학물질로 생물학적 생명체를 만들려고 적어도 한 세기를 보냈다. 하지만 하나의 DNA 분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세포의 에너지, 정보 저장, 신진 대사 기계는 서로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잡한 시스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는 한 첫 세포는 자연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생명체에 붙어있지 않는 체세포는 파괴된다. 생명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의 모든 실패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강조한다(시 36:9).

5. 우리는 지렁이와 공통 조상에서 비롯되었다?

고양이 종류에 포함된 사자, 호랑이, 라이거 및 치타와 같이 하나의 종류 내의 변이는 관찰된다. 생물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질 변형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물고기가 개구리로 변하거나 지렁이가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어떤 전이 화석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생물 사이의 비슷한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공통 조상의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각 연구가들은 서로 다른 지도를 만든다. 이들이 만든 모든 지도는 한 특성을 가진 생물이 자발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종류로 진화하는 상상의 이야기를 보여줄 뿐이다. 〈계속〉 [GPNEWS]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선교 통신

종족 갈등도 복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 코소보의 한 도시에 위치한 교회. 출처: pxhere.com

코소보에 연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거의 2주간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겨 피해가 심각하며, 추운 겨울이어서 이재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강 근처에 사는 저희 교회 성도, 코랍의 집도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정부가 이번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15살 때 코소보 전쟁이 나면서 난민이 되어 오스트리아로 떠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살 때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휴가를 맞아 고향에 온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다가, 늦게나마 우리 교회의 표지판을 발견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 받은 한 난민 청년의 방문

청년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세르비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코소보 알바니아계들은 자신들을 탄압하고 괴롭힌 세르비아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도 복음이 세르비아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니 난민 청년은 그 사람이 세르비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세르비아 신자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청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난민 신분으로 구원 받은 청년을 보내심으로 다시금 전도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능력과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전도의 열정으로

코소보에 한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900명 이상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180만 명에 비해 너무 많은 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통행 금지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상업 활동은 허락이 되어 태권도 도장은 마스크를 쓰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배를 대면으로 하고 태권도는 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오다가, 크리스마스 전에 다행히 여건이 나아지면서 대면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성탄 전 대면예배로 전환

덕분에 성탄 예배와 새해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대면예배가 절실하지만 이곳 인구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기에 안심할 수는 없어서, 모든 것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비대면이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GPNEWS]

코소보=이성민 선교사(GMP 소속)

▲ 코소보의 한 교회 예배의 모습. ⓒ 복음기도신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바울은 하나님을 알겠다는 열정에 압도되었다(빌 3:10,11).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열정을 알게 된다면, 그가 왜 어떤 일은 행하고 또 어떤 일은 행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대로 그분을 아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생 계속되어야 할 일이며, 장차 그분을 직접 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끝날 일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연예, 휴가 같은 일시적인 것들에 열정을 낭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한다. 일시적인 것들을 향한 열정은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초월해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곳에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GPNEWS]

하나님을 향한 열정
(A.W.토저.2016)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거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다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손은식** 목사(프레이포유 교회)

ⓒ 복음기도신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노숙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은식 목사를 만났다. 그에게 노숙인은 아버님, 어머님이다. 그는 거리에 나와 노숙인들과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 수고한다."라는 인사를 할 때 그는 속으로 웃는다. 그는 노숙인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거리에 나왔을 때는 노숙인 사역을 하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서른 살에 장로가 되실 만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친숙했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죠."

- 결국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언젠간 목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관광경영학과를 나와서 여행 인솔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문화, 언어, 역사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았어요. 그때 제 달란트를 발견한 거 같아요. 여행지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게 해줘서 네가 좋아하는 일 했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겠니?' 이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목회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신학대학교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학교에서 내려오는 학생을 붙잡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물었어요. 마침 학교 앞에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학원에 등록해서 2007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언젠가는 목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셨네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열정이 넘쳤어요. 신대원에 입학하기도 전에 사역지를 구해서 교육전도사부터 교육목사, 부목사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 빨리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받기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목사, 담임목사로 가는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내가 갈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길이 있다는 확신을 오래전부터 가졌거든요."

- 주님이 주신 길을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무조건 '주님, 어딥니까?' 기도하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거리에서 무작정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에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4000만 명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기도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이포유(Pray For You)가 생겨나게 됐어요."

- 노숙인 사역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역이었군요?

"2014년 1월 1일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인들 몇 분이 모여서 서울 중구에 있는 공원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손은식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연락주세요.'라면서 돌아다녔어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이 저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고, 전도지나 명함을 줘도 저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막상 거리에 나오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두 달이 지나니까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생각하게 됐어요."

▲ 영등포역 광장에서 기도 중인 무명 집사님. 제공: 프레이포유

기도를 하겠다고 거리에 나왔지만…

- 위기가 찾아왔군요.

"집에는 아내와 아들, 갓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부목사 직을 내려놓고 재정이 공급될 곳도 없었어요.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는 2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앞이 캄캄했어요. 힘든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공연 무대에 6~7분 정도가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거의 매일 누워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전 목사였지만 걸인들을 만나면 1000원을 줄까, 말까 고민하던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도 힘드니까 이심전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에 빵을 사서 다가갔어요. "기도하는 목산데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났는데 주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식아, 고맙다. 내가 여기에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 그렇게 처음 노숙인들을 만나게 되셨군요? 이후 어떻게 됐나요?

"그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거구나. 매일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간식을 사들고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교제를 하다가 들어갔어요. 이후 주말에 섬길 수 있는 사역지도 생기면서 재정 공급도 허락해주셨어요. 조금씩 프레이포유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에게 간식봉지를 만들어 나눠드렸어요. 아내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것도 쪄주면 담아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풀타임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긴 했죠. 그러다 3년째 되던 해에 한 선교단체 간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 좋은 소식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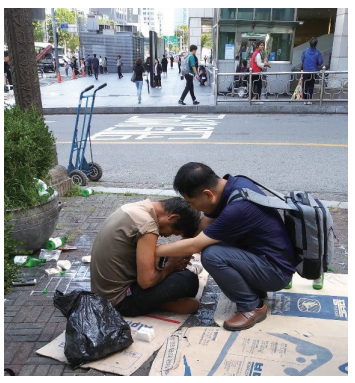
"해외에서 선교단체 지부도 설립하고 섬기셨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사역으로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데요. 알아보다가 프레이포유를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갑자기 3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생겼어요. 대부분의 노숙인 사역은 센터를 세우고 급식사역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간식을 드리면서 기도해주는 사역은 8년 동안 사역해오면서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이 사역을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분들을 만난 건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 진짜 열매가 뭐죠?

"어느 날 한 공원에서 노숙인 한 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선하더군요. 저와 교제하고 나서 제가 목사인줄 알고 성경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대화하면서 이분과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거리에서 한 명의 사역자가 생겼어요. 한 분이 생기니까 며칠 내 또 다른 한 명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역을 끝내고 이분들을 다시 거리로 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이분들의 고시원비를 책임져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역자가 생겼어요. 이제 4명이 함께 모여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노숙인 출신이 노숙인을 위해 기도하다

- 노숙인이었던 분이 노숙인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군요.



▲ 영등포 거리 사역에서 기도하는 모습. 제공: 프레이포유

"이분들은 이 사역에 준비된 분들이에요. 하루는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한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 분은 피부병이 있어서 손등이 눈꽃이 핀 것처럼 하얘서 저는 한 번도 그분 손을 못 만졌어요. 병이 옮으면 사역하는 게 어렵기도 해서 갈 때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가자마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눈물이 나던지요. 이게 진짜 프레이포유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저보다 사역을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선교단체의 여러 사정으로 간사님들이 이분들의 고시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여러 과정 끝에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떠나시고 우리 형제들과 저까지 4명이 남게 됐어요. 막상 고시원비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문제였어요. 게다가 저 혼자 사역하다가 사역자가 4명이 되고 나니 사역비도 4배로 늘어난 상황에 답이 안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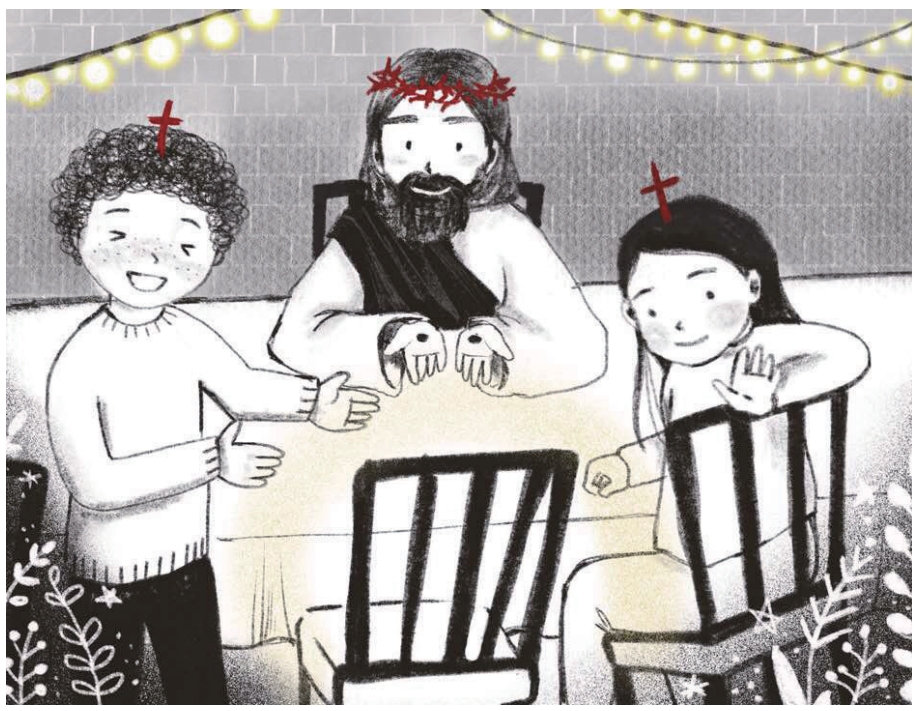
어울리지 않는 죄인과 함께 계신 예수님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 본 적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실 때 하신 비유 중 하나가 잔치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 잔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개념의 잔치임을 누가복음 14, 15장의 이야기로 들려주신다.

우리는 잔치에 가면 VIP 자리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잔치에 가거든 높은 자리를 찾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신다. 우리가 보통 잔치 자리에서 기대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이다. 또한 이 땅의 잔치는 초청받는 사람의 수준이 곧 주인의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귀빈을 초청한다. 그런데 주님은 장애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볼 이 없는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신다.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 잔치는 베푸는 잔치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왕의 잔치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지 못하는 이유도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왕의 초청을 한낱 일상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왕을 모욕하는 태도였다. 왕은 갑자기 종들에게 명한다. "길가로 나가 청함 받지 못한 자들, 갚을 것 없는 자,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장 먼저 맡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받은 족속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VIP 자리로 청함 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일러스트=이예원

만 값없이 거저 받아 귀한 줄 모르고 밟고, 뭉개고, 찢고 내버렸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청과 특권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나라를 그러한 자들로 채우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 당시 세리는 죄인과 같은 의미였다. 유대인은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세리와 교제나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유대인의 생각에 세리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당시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이자 특별 계층인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있는 세리들을 보고 천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일상적인 반응이었고, 이것이 인간적인 수준의 가치와 정서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말로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칭한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즉, "이 천한 인간들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라는 말이다. 상황이 되자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2018년 4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야긴과보아스 JAKIN & BOAZ

복음 마스크 출시

고퀄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고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믿음의 삶

필통의 메모와 펜… 눈물이 핑 돌았다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다. 이번 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 친히 가르쳐주셨다. 선교사인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눈으로 보며 자라왔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급받은 휴지가 떨어졌다. 아침에 눈을 떠 플로잉(나눔·후원) 박스, 사물함 등 주님이 공급하셨을 만한 모든 곳을 뒤졌다. 그러다 결국 지체에게 얼른 빌려 사용했다. 지체를 통해 공급받은 거라고 변명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명할 수 없도록 이틀간 아침마다 누군가 플로잉 박스에 내어놓은 휴지를 보여주셨다. 그 휴지들이 외치는 것 같았다. "이 믿음 없는 놈! 살아계신 하나님을 휴지 하나 못 주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놈!" 나의 믿음 없음이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기도실에서 창세기 1장을 읽다가 펑펑 울며 회개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관념 속 하나님으로 대우해 온 걸까?' 부모님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을 뿐,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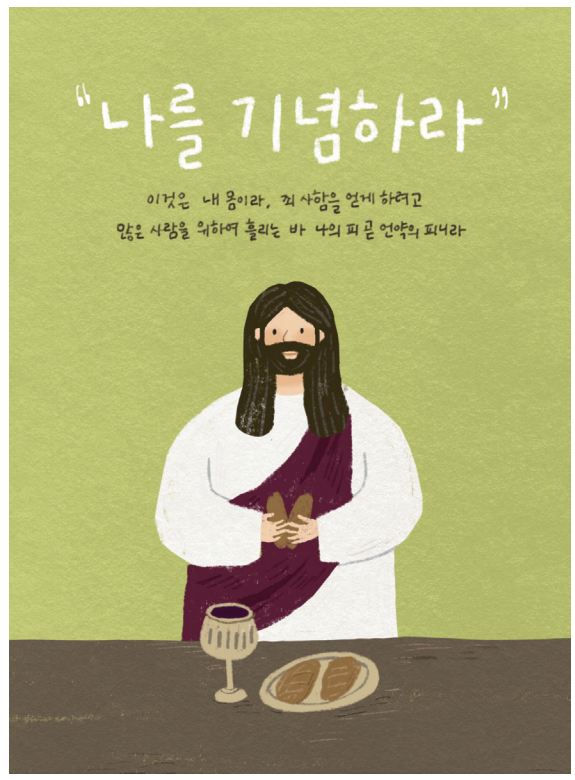
일러스트=고은선

한번은 내가 가지고 있던 필기구를 플로잉 박스에 내놓았다. 나는 적당히 내 생각대로 순종을 가장하여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볼펜 리필심을 주시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교묘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바라는 마음 중심을 비추시고 회개케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가셨다.

이런 믿음의 기다림을 처음 경험해본 나는 중간에 또 부끄러운 사건을 저질렀다. 플로잉 박스를 지나가던 중에 노란색 볼펜이 눈에 들어와서 홧김에 가져다가 강의안을 쓰기 시작했다. "주님, 맞죠? 주님이 주셨죠?" "하람아, 나는 네게 노란색 펜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내 약속 수정하지마! 난 바로 그 볼펜심을 네게 줄 거야." 믿음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가져온 펜을 원위치 시켰다. 기도로 인내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약 3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며 강의에세이를 쓰려고 필통을 열었는데, '주하!'(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새 볼펜 한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구하던 그 볼펜심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다림 끝에 얻은 건 볼펜이 아니라, 내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였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길에 기쁘게 유유히 따라가려 한다. [GPNEWS]

지하람

그림 묵상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떡과 잔을 받을 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것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는 메시지였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진다. '네, 주님 잡아먹고 저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잡아먹고, 당신 사십시오.'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北, 갑작스런 코로나 봉쇄령에 주민들 추위와 굶주림 직면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양강도 혜산시에 지난해 11월 초, 봉쇄령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20일 동안 집안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고 지난달 2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혜산시의 한 소식통은 "당시 당국이 봉쇄를 급작스럽게 했다."면서 "대체로 밥 대신 죽을 먹었고, 집안 온도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떼면서 버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 등을 보면서 견뎠지만, 식량, 부식물 문제는 상당히 곤란했다."며 "당장 집에 식량이나 땔감을 비축해두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봉쇄령을 어기고 집 밖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일부는 단련대로 보내는 처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봉쇄 조치는 너무 지나쳤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민은 "북한은 일단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검진기구가 없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수습할 수 없다."면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조건에서 과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새해에도 봉쇄령이 다시 내려오면 인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자칫 고난의 행군(19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餓死)시기) 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아사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GPNEWS]

▲ 북한 양강도 혜산시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별나라TV 캡처

쿠웨이트 대사대리 탈북… 휴민트 보안 문제, 암살 위협 고조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 2019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쿠웨이트 근무지를 이탈해 그해 9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국가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해 북한에게 중요한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을 것이다.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이 정권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북한 내 정치역학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과 외교관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겹쳐 류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북한의 금융 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노퍼 국장은 쿠웨이트 주재 북한 외교관은 요직이라면서, 류 대사대리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전일춘 전 실장의 사위였던 것도 망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39호실 체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환멸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전일춘 전 실장은 2010년 12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책에 관여한 혐의로 유럽연합(EU)의 개인 제재 대상에 올라 자금 확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17년께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류 대사대리의 입국설로 대북정보망이 새고 있으며, 이는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휴민트)에 대한 보안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극비사항이 보도되고 있지만, 고위 탈북 인사들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고조된다는 의미이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코리 텐 붐 〈주는 나의 피난처〉

원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용서를 경험한다

코리 텐 붐 지음 | 양은순 옮김 | 생명의말씀사 | 336p | 2014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두신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아닐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극에 다다르고 평온했던 네덜란드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간다. 시계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코리 텐 붐 가족은 신앙적으로 바르고 보수적이었다. 코리의 가족들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존경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독일군의 최대 표적이 되는 유태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50대의 중년 여성 둘, 그리고 80대의 늙은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유태인들을 위해 지하조직을 만들고 첩보 수준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슬아슬하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생명을 걸고 순종한다. 읽는 내내 그들이 잡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국 가족 모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미 늙고 병든 아버지는 수용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한다. 언니 벳시와 둘만 남게 된 코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결코 빼기지 않는 법들을 배우며 그들만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간다. 하룻저녁 모임에 루터 교인들의 속삭이는 듯한 찬송가와 정교회 신도들의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포함되었다. 매번 주위에 몰려드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가까이에 있는 침상이 꽉 찼고 침대가 삐걱거리고 흔들릴 때까지 사람들이 매달렸다.

수용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천국의 작은 시사회였다

"벳시나 내가 성경을 펴고 네덜란드 말이 아닌 독일어로 크게 번역해주었다. 그 말씀은 다시 불어로, 러시아 말로, 체코 말로, 다시 네덜란드 말로 전달되었다. 그 예배는 천국의 작은 시사회였다." (p.281)

그러나 그곳은 수용소였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 그리고 죄수라는 무기력한 상황 앞에 코리는 매일 싸워 이겨내야 했다. "(간수의 가죽 채찍에 맞아) 빨간 얼룩이 벳시의 칼라로 배어나왔다. 내가 그녀의 맞은 자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 벳시는 새처럼 가는 손으로 그곳을 가렸다. '보지 마, 코리. 예수님만 바라봐.'" (p.286)

나도 코리와 함께 슬픔과 분노가 치솟았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벳시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악을 저지르는 독일 사람들 뿐 아니라 코리 안의 존재적 죄 됨을 날카롭게 도려내시는 분이셨다. 수용소에서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우리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위가 심해지는 수용소 안에서 아픈 언니 벳시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코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코리가 사탄의 커다란 속임수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코리를 은혜 입은 죄인의 자리로 건져 내신다. 실제로는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으나, 서류 착오로 석방된 코리는 전쟁 이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나 설교를 하게 된 교회에서 수용소 간수를 만나게 된다. 그가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자 코리는 분노로 몸을 떤다. 차마 그에게 손을 올리지 못하는 코리의 마지막 모습. 성경을 알고 동의하는 것과 실제 되는 것은 때론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우리에겐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이다. 코리는 손을 올려 그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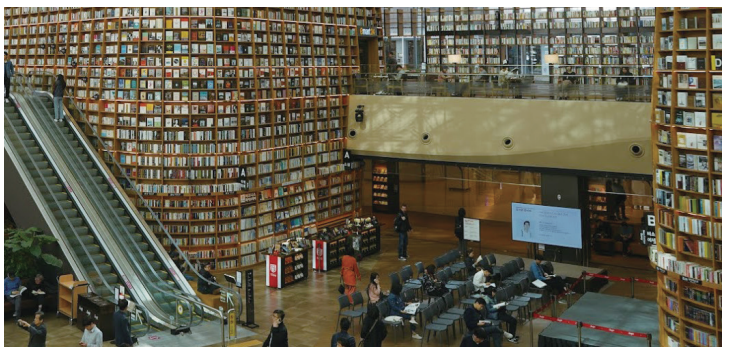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시 69:30, 새번역)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 때를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코리처럼 말이다. [GPNEWS]

최현정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무상복지 실험의 결말, 코넬대 F학점 사건



▲ 별마당 도서관에서. 제공: 현승혁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자의 가정은 2018년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고 세계 랭킹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코넬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인 코넬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고, 아들은 이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 코넬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한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학점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학기 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어느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시 그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학점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런 종류의 무상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합니다. 3.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합니다. 4.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입니다. [GPNEWS]

〈P 교수〉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 9 ~ 1. 26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다경 김사회 김상수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정순 김지영 김혜신 박숙자 박현숙 신현경 이삼연 이주선 임희순 정금자 정영숙 조명숙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하 원 하은숙 홍광석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김화제일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사회복지법인대 산곡교회 시은좌교회 새순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보평강교회 오예그교회 주소망교회 열매교회 참좋았더라교회 헵시바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